



임팩트그라운드

사업결과 보고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과 여러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 출범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혁신조직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풀어내고, 스케얼업/스케일아웃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험과 아이디어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 자료는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을 받는 사회혁신조직의 사업 결과보고서입니다. 사회공익을 위해, 본 자료를 공유하며, 영리목적의 사용이나 자료의 편집은 불가합니다.

2024년 "공익법센터 어필" 사업결과보고서

2025, 01, 17

공익법센터 어필은 취약한 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로, 법적 전 문성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소송과 신청, 연구와 입법운동, 연대 활동, 인식제고 캠페 인, 국제인권 메커니즘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사업 개요

- 주관 / 후원 : 공익법센터 어필 /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

- 목표 : 난민 법률 조력 비율의 비약적 향상, 난민처우 개선, 난민인식 개선

- **사업 기간**: 2024년 1월~12월 (총 사업기간: 2023년 ~ 2025년 3년간)

- 사업 내용 : 지속적인 난민 법률 조력 및 업무공간을 위한 사무실 구매

■ **주요 성과 요약** (별첨자료 참고)

- 난민 사건 승소 14건 : 나이지리아 2건, 우간다 1건, 이집트 8건, 중국 2건, 콩고 1건
- 공항 난민 사건 승소 10건 : 러시아 2건, 미얀마 1건, 에티오피아 2건, 중국 1건, 카메룬 1건, 튀 니지 3건
- 제9회 난민영화제 공익법센터 어필 주관
- 신규 변호사 1명 채용

별첨자료

■ 사업 세부 성과

- 1.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난민인정 구조
- 어필 직접 지원을 통해 난민 인정된 사례

난민 신청자 국적	난민 사유	결과	
이집트	정치적 견해	난민 인정	
중국	정치적 견해, 민족, 종교	난민 인정	
나이지리아	정치적 견해	난민 인정	
콩고	정치적 견해	항소기각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사진 1 : 난민 혼인신고 축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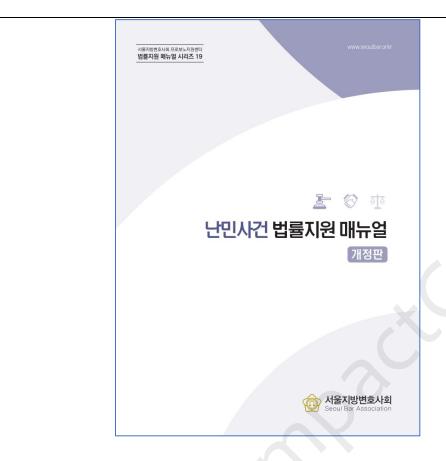
[사진 2 : 러시아 난민 인정 촉구 기자회견]

- 2.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공항 난민 사건 구조
- 공항 난민 사건 승소를 통해 법률지원 저변 지속적인 확대

난민 신청자 국적	난민 사유	결과
러시아	전쟁 징집 거부	승소(불회부결정취소)
에티오피아	전쟁 징집 거부	승소(불회부결정취소), 항소기각
튀니지	성소수자, 여성	승소(불회부결정취소)
카메룬	영어권 박해	승소(불회부결정취소)
중국	종교, 정치적 견해	승소(불회부결정취소)
미얀마	정치적견해	승소(불회부결정취소)

- 어필의 성과를 바탕으로 외부 지원 조직들의 공항 난민 사건 구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역량 강화: 난민인권네트워크, UNHCR, 대한변호사협회, 인천지방변호사회, 로펌공익네트워크 등
-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 : 인천공항 난민지원 공익활동 사례발표회 ('24. 6.) 난민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작업/설명회 ('24. 2.)





[이미지 1 : 인천공항 난민지원 공익활동 사례발표회 포스터 &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 정판]

3. 제9회 난민영화제 공익법센터 어필 주관

- 6월 22일 압구정 CGV에서 오전 11시~ 오후 6시 개최
-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유엔난민기구가 공동 주최하고 어필이 2년 연속 주관
- 16개 단체가 협업하여 행사를 준비하였고 관람객 395명 참석



[사진 3 : 난민영화제 개막식]



[사진 4: 난민영화제 부스 행사 모습]

4. 신규 변호사 1명 채용

- 김민지 변호사 24년 5월 1일 입사
- 기존 어필 이일, 전수연, 이종찬 변호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쌓아온 난민 법률 지원에 필요한 노하우(1. 난민 국제법, 2. 국제인권법, 3.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 실무, 4. 이주난민 소송, 신청

실무) 전수를 위한 교육 및 멘토링 진행



[사진 5:24년에 신규 입사한 김민지 변호사]